

2025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Vol.7

ISSUE FOCUS



초고령 사회 × 디지털 사회

WHO
edition

ISSUE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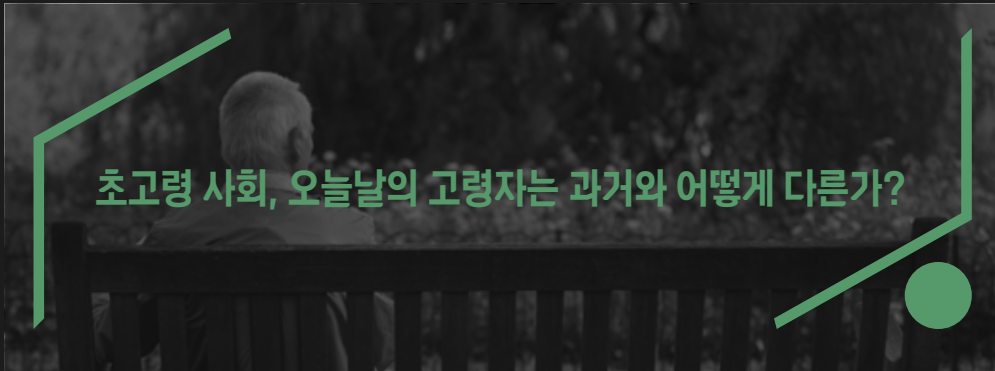
초고령 사회 × 디지털 사회

ISSUE



- > 초고령 사회, 오늘날의 고령자는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
- > 디지털 사회, 고령자에게는 어떤 위협과 기회가 있을까?
- > 초고령·디지털 사회, 고령자 평생학습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늘어난 수명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오늘날의 고령자는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활기차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능동적 학습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초고령·디지털 사회가 고령자에게 주는 도전과 기회를 조망하고, 평생학습이 이들의 삶과 사회적 참여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12월 말,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오늘날의 고령자는 건강하며 사회 참여 의지가 높고, 취미·여행·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고령자는 길어진 생애주기에 따라 새로운 삶을 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가진 학습자다. 평생학습은 고령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 전체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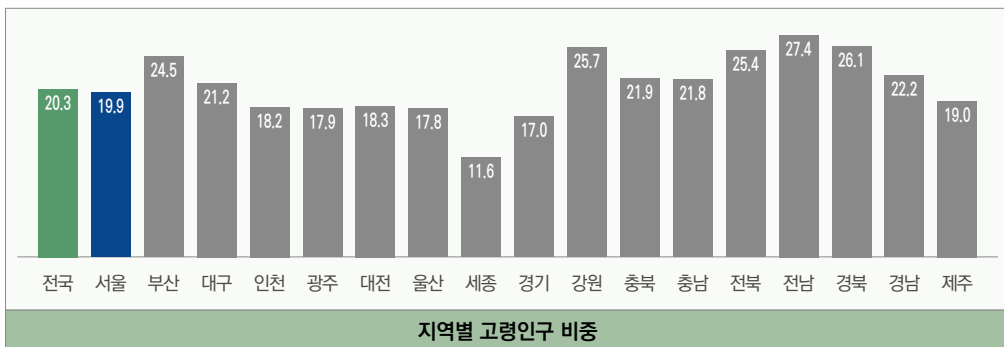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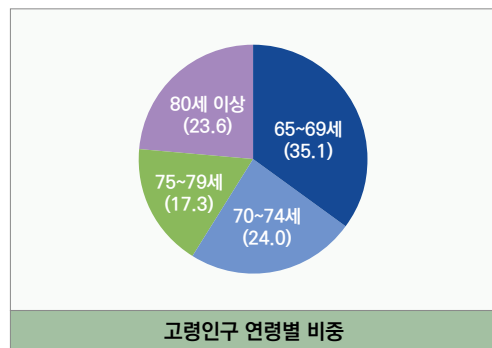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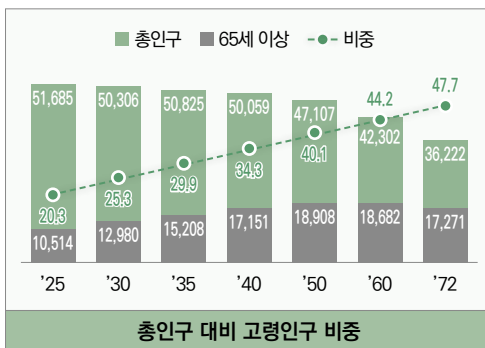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인구 구조의 변화

수명 연장과 초고령 사회, 전체 인구의 10명 중 2명은 고령인구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함.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함. 고령인구 비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고령인구 비중



출처: 통계청(2025), 2025 고령자 통계¹⁾

1)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은 매년 노인의 날(10.2.)을 맞아 고령인구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여 「고령자 통계」를 발표함. 본 보고서에서는 2025년에 발표된 2024년 기준 자료를 활용함.

새롭게 주목해야 하는 고령자의 특징



과거와 달라진 고령자 삶의 양상

오늘날의 고령자는 과거 세대와 비교했을 때, 건강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증가하는 등 활발한 삶의 양상을 보임. 특히,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의지가 확대되고 있음. 취미·여행·친목·종교·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 또한 높게 나타남.

[표 1] 고령자 삶의 양상 및 희망 변화

구분	과거	현재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하다” 또는 “좋다” 비율 (2004/2023)	33.7%	43.2%
경제활동 참가율 (2014/2024)	55.3%	60.6%
장래 근로 희망 (2014/2024)	62.2%	69.4%
가장 주된 일자리 선택 기준 (2010/2023)	임금 수준(32.8%)	일의 양과 시간대(29.6%)
주된 희망 노후 생활 방법 (2015/2023)	① 취미 활동(56.4%) ② 소득창출 활동(18.0%) ③ 종교 활동(12.3%)	① 취미 활동(44.3%) ② 여행 및 관광 활동(23.4%) ③ 소득창출 활동(12.3%)
사회활동 참여 희망 (2004/2023)	① 종교단체 가입(49.2%) ② 사교단체 가입(35.3%) ③ 자원봉사활동 참여(13.0%)	① 친목활동 참여(71.8%) ② 종교활동 참여(48.8%) ③ 자원봉사활동 참여(45.6%)

원출처: 정경희 외(2005), 강은나 외(2023), 통계청(2010. 7. 29., 2023. 7. 25., 2024. 7. 30.), KOSIS(2021. 11. 30., 2023. 11. 9.)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표 재인용: 김경애(2025). 초고령·장수사회와 디지털 대전환의 교차점, 고령 세대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까? KEDI BRIEF Vol. 21. 한국교육개발원

고령자의 평생학습 요구

평생학습 참여 의향과 다양한 학습 동기

김경애 외(2024)의 우리나라 5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3.0%로 나타났으며, 향후 참여 의향은 두 배 이상 높은 76.2%로 조사됨. 참여 희망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2]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구분		1순위	2순위	합
수단적 목적	자격증 획득	11.5	3.9	15.4
	실무 기술	5.7	4.7	10.4
	창업 준비	2.3	2.9	5.2
	경력설계·개발	1.6	2.1	3.7
	노후·은퇴 설계	13.0	12.3	25.3
사회적 목적	디지털 사회 적응(디지털 교육)	11.9	11.1	23.0
	의사소통 기술	1.3	2.3	3.6
자기개발적 목적	취미·문화활동	17.1	17.6	34.7
	건강, 의료	17.0	24.8	41.8
	마음 관리	5.1	9.0	14.1
지식적 목적	교양지식	10.8	5.1	15.9
	생애 마무리를 잘 하는 법(죽음학)	2.7	4.2	6.9

출처: 김경애 외(2024).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고령자 평생학습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고령자의 지원 요구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물리적·시간적 제약을 해소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프로그램 질 제고, 교·강사의 전문성, 교육정보 접근성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단순히 프로그램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학습의 질과 접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임.

[표 3] 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수요

구분		전체		평생교육 유경험자		평생교육 무경험자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교육 기회	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용(학습비) 지원	24.6	17.2	22.7	17.2	25.5	17.3
	교육기관으로의 지리적 접근성 강화	9.7	17.0	7.6	17.5	10.8	16.8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간 다양화	6.8	14.5	6.7	15.1	6.9	14.2
교육과정/내용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수준별 교육 등)	32.9	13.2	39.4	12.3	29.7	13.7
	교육 프로그램의 질 강화	11.1	23.7	12.4	23.4	10.5	23.8
교·강사	교·강사 전문성 강화	6.8	5.4	7.9	6.2	6.3	5.0
교육정보	교육프로그램 관련 양질의 정보	3.2	8.9	1.8	8.3	3.9	9.3
해당 사항 없음		4.9	-	1.5	-	6.6	-

출처: 김경애 외(2024).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고령자 평생학습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 사회, 고령자에게는 어떤 위협과 기회가 있을까?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이 공존한다. 신체적·인지적 한계와 환경적 장벽은 고령자를 디지털 소외 집단으로 만들지만, 고령자 친화적 기술은 학습과 사회 참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된다. 디지털 사회 속 고령자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배움과 참여를 지원하는 첫걸음이다.

디지털 소외집단으로서의 고령자

고령자의 디지털 기반 사회활동 저해 요인

디지털은 단순히 활용하는 도구를 넘어, 이 시대의 삶의 양식이 되고 있음. 전 사회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디지털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령자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디지털 기반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개인 내(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와 개인 외(기술적,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표 4] 고령자의 디지털 기반 사회활동 저해 요인

영역		설명 및 하위 요인	
개인 내	신체적 요인	노화 및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한 시각, 청각, 미세 조작 등 신체 능력 저하	
	인지적 요인	주의 집중력, 학습 속도, 기억력, 정보 처리 능력 등 인지력 감소, 외국어 해득력 부족	
	정서적 요인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불안과 우려, 변화에 대한 저항감과 낮은 기술 수용성, 디지털 효능감과 자신감의 부족	
개인 외	기술적 요인	낮은 접근성과 사용성	화자와 버튼의 크기, 복잡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에 따른 사용의 어려움
		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변화	기술의 발전과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고령자 학습 속도
		기술의 복잡도 증가	기술의 복잡도 증가로 배우기 어려운 사용법, 고장 등 문제 발생 시 해결의 어려움
	경제·사회·문화적 요인	낮은 경제 수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이나 최신 기술의 사용 및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고령자 맞춤 교육 부족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 사회적 관계 부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학습 기회의 부족
		디지털화에 따른 사회의 속성 변화	정보 접근성 확대에 따른 기존 권위의 약화, 디지털 기술의 융통성 부족과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부정적 인식과 선택권의 제한	디지털 역량이 낮다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고령층 대상 서비스의 부족

출처: 김경애 외(2024).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고령자 평생학습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 기술이 열어주는 학습의 길



디지털 에이징 (Digital Ageing)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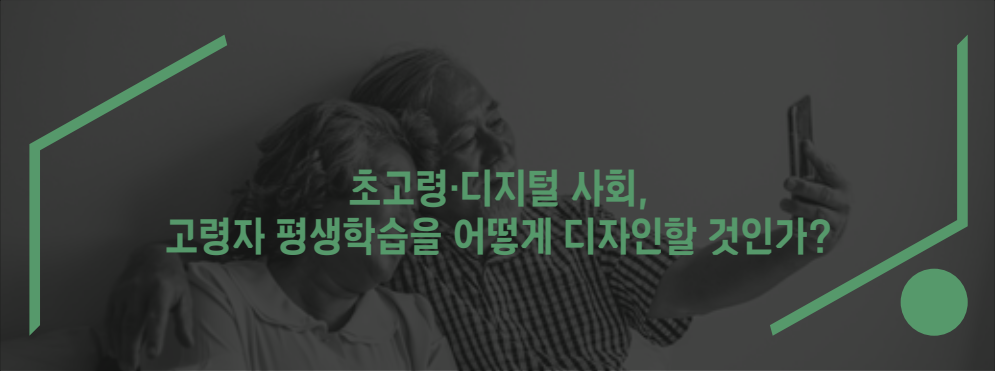
디지털 전환은 고령자에게 위협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음.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eing)'은 고령자에 대한 관점을 부정적 관점(병약, 보호, 의존, 복지, 돌봄 등)에서 학습, 활동, 생산, 참여, 기여 등 능동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eing):** 디지털 문화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잘 활용하면서 나이 드는 것을 의미함.

고령자 친화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학습 혁신

최근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를 주 수요자로 하는 '실버테크(SilverTech)', '에이징테크(AgeingTech)', '제론테크(GeronTech)' 분야가 주목받고 있음. 주로 돌봄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나, 점점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

예를 들어, 시력·청력 저하를 보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가 자연스럽게 기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등 고령자 친화적 에듀테크 도구의 개발 및 활용은 고령자 평생학습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임.



초고령·디지털 사회, 고령자 평생학습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고령자는 이제 단순한 ‘노년층’이 아니라, 장수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하는 학습자다. 이들은 신체적·인지적 한계를 넘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활발히 참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평생학습은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활력과 사회 참여를 연결하는 새로운 학습 모델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맞춤형 학습 설계와 적극적인 디지털 포용을 통해 고령자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세대 간 지식을 나누며, 사회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개의 거대한 파고: 초고령·장수사회,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고령자는 생애 전환과 디지털 적응이라는 이중 과제를 가진 학습자

고령자는 선례가 없이 길어진 고령 시기를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생애 전환의 과제를 가지고 있음. 또한 자신의 학령기 시절에는 상상도 못한 디지털 세상에서 급변하는 사회 규범과 생활방식을 내재화해야 하는 디지털 적응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디지털 대전환은 삶의 양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고령자들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되고 있음.

고령자 집단은 이러한 전환과 변화라는 커다란 학습 과업을 안고 있는 집단으로서, 평생학습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중요 학습자 집단으로 인식되어야 함.

거대한 파고를 기회로 전환하는 평생학습

고령화가 사회적 위기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은 중대한 사회적 과제임. 기존 사회 제도는 고령자를 복지적 대상으로 여겨왔고, 정책 역시 복지 중심으로 실행되어 왔음. 그러나 현재 정년 이후에도 일 또는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하고자 하는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을 위해 활동적·능동적·참여적 삶을 추동하는 평생학습 지원 정책이 요구됨.

평생학습은 고령자가 낯선 발달 과제를 헤쳐 나가고, 세대 간 교류하며, 제2의 사회활동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줌. 고령자 평생학습의 재설계 및 지원 확대는 초고령 사회의 도전 과제를 기회로 전환하고, 사회 전체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국가 전략이 될 수 있음.



고령자 평생학습,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 것인가?

고령자 평생학습,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평생학습 영역에서 고령 학습자는 ①삶의 개척자, ②사회적 가치 창출자, ③다양한 세계를 품고 있는 개별자, ④고유한 발달 과제와 특성을 가진 학습자, ⑤평생교육 정책과 실천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 정의할 수 있음.

따라서 고령자의 평생학습은 단순한 복지나 돌봄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새로운 학습 모델로 재설계되어야 함. 핵심은 평생학습을 ‘무언가 배워야 하는 행위’로만 한정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데 있음. 고령자의 평생학습이 특정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 머물지 않고, 심신 건강 유지, 사회적 관계 형성, 제2의 경력 설계로 확장될 때 비로소 평생학습의 보편화가 가능해질 것임.

맞춤형 학습 설계와 디지털 포용의 과제

고령자의 평생학습은 연령대와 생애주기에 따라 목적이 상이하므로, 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수적임. 단순히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령자가 자신만의 삶의 목표를 실현하고 사회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특히 디지털 사회에서 고령자를 ‘취약계층’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원로(元老)’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이들의 전문성과 삶의 경험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될 때 새로운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경험을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와 교류함으로써 세대 간 상호학습 및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음. 이러한 디지털 포용은 고령자에 대한 존중을 높이고, 세대 공존형 학습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됨.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맞춤형 평생학습 확대:** 고령자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이 삶의 실천과 기여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함.
- **디지털 적응 및 활용 지원 강화:** 디지털 역량 수준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해도와 활용 격차를 줄이고, 단순한 기기 사용법을 넘어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학습 내용 다양화:** 고령자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함.



초고령 사회 × 디지털 사회,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으로 위기를 기회로!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오늘날의 고령자는 과거보다 건강 수준이 높고, 경제활동 참여 의지도 강하다. 또한 자기개발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다. 이제 고령자는 단순한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학습자 집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고령자에게 다양한 장벽을 안기지만,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eing)’ 관점과 고령자 친화적 에듀테크는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디지털 도구와 결합해, 고령자가 능동적 학습자이자 사회적 기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고령자는 선례 없이 길어진 생애를 스스로 개척해야 하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그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정책이 주로 복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평생학습을 통해 고령자가 능동적이고 참여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평생학습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넘어, 심신 건강 유지와 사회적 관계 형성, 제2의 경력 설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맞춤형 학습 설계와 디지털 포용을 통해 고령자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함으로써, 세대 간 상호학습과 사회적 기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결국 고령자 평생학습의 재설계와 정책 지원은 초고령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사회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과제가 될 것이다.

FOCUS

“배움과 참여로 활력을! 초고령·디지털 사회 속 평생학습”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고령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디지털 사회에서도 능동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소개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는 주목할만한 평생학습 이슈를 선정하여 WHERE, WHO, WHAT, HOW, WHY 5가지 카테고리, 평생학습이 우리 주변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과 현황을 보여주고, 앞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제안합니다.

본 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고령자 평생학습 지원방안』(김경애·김진희·이정우·한효정·이로미·한정윤(2024), 한국교육개발원)의 일부 내용을 발췌·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집필: 김경애(한국교육개발원)

기획/편집: 문이슬, 최민음(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책팀)

참고문헌

- 강은나·김혜수·정찬우·김세진·이선희·주보혜·황남희·김경래·이혜정·최경덕(202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애(2025). 초고령·장수사회와 디지털 대전환의 교차점, 고령 세대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까? KEDI BRIEF Vol. 21.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애·김진희·이정우·한효정·이로미·한정윤(2024).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고령자 평생학습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통계청(2010. 7. 29.). 2010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 통계청(2023. 7. 25.).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 통계청(2023. 11. 8.). 2023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소비·노동) [보도자료]. 통계청
- 통계청(2024. 7. 30.).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 통계청(2025. 9. 29.). 2025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통계청.
- KOSIS(2021. 11. 30.).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19세 이상 인구). 2024. 8. 2. 인출
- KOSIS(2023. 11. 9.).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19세 이상 인구). 2024.8. 2. 인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